

손학규號 바른미래, 화합 속제 '주목'

2일 선출된 '손학규號' 바른미래당 앞에 놓인 과제는 점점 산중이다. 우선 통합 직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국민의당-바른정당 출신들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봉합해야 한다. 아울러 통합 시너지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도 시급한 숙제다.

◇국민-바른 갈등, 고질적 문제...손학규도 당사자

바른미래당은 통합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각각 박주선 전 공동대표와 유승민 전 공동대표를 내세워 구성원 간 화합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통합 직후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실질적인 통합 작업은 지연됐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통합 파트너였던 안철수 전 의원과 유 전 대표가 공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노출하며 오히려 두 당 출신들 간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지도부 방한기를 겪게 된 손학규 신임 대표 역시 지방선거 당시 송파를 재보선 공천 과정 당사자로 당내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은 입장이다. 특히 유 전 대표는 손 대표의 송파를 공천에 '원칙'을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때문에 스스로 당내 갈등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손 대표가 통합 이후 깊어져온 양당 출신들 간 감정의 골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손 대표의 경우 전당대회 과정에서 안 전 의원 측근들의 지원으로 안심(安心) 논란에

시너지 못 본 통합...국민-바른 갈등 회복해야
'공천파동' 당사자로 봉합 해결 못하면 '뇌관'



휩싸이기도 했다. 이는 손 대표의 향후 당내 통합 과정에 민민층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와 보수? 중도와 보수?...정체성 갈등 '뇌관'

민주 진영에서 출발한 국민의당과 보수 진영에서 출발한 바른정당 간 정체성 갈등 역시 상존하는 뇌관이다. 당초 통합 파트너였던 안 전 의원과 유 전 대표는 지난 1월 '통합 공동선언' 당시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를 당 정체성으로 공개 거론했었다.

아울러 유 전 대표의 경우 바른미래당 출범 직후부터 '개혁보수' 정체성을 강조해 왔고,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대표직 사퇴의 번에 서도 '보수'라는 단어를 7번이나 거론하며 보수 정체성을 굽힐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보수 진영이라는 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당 시절부터 함께 해온 호남 중진들의 경우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법보수'로 분류되는 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온 게 사실이다. 특히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내지 통합은 호남 정서에 정면 배치되는 만큼 이들에겐 국도로 민감한 주제다.

당내외에선 이르면 내년 5월께에는 어떤 재편 내지 정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손 대표 체제 하에서 이에

앞서 당 정체성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당이 진로 문제로 내홍을 빚으며 또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중처럼 안 나는 '통합 시너지'...지지를 회복할까

통합 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당 지지를 상승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손학규 지도부의 고민거리다. 통합 전 국민의당은 당초 자체 조사를 통해 바른정당과 통합시 지지율이 19% 상당으로 치솟는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너지는 정작 통합 직후엔 현실화되지 않았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실시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바른미래당 전국 지지율은 7%로 더불어민주당(40%)과 자유한국당(12%)은 물론 정의당(12%)에도 한참 밀렸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resdc.go.kr>) 참조.

이처럼 한자리수를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당 지지율은 향후 정계개편 내지 어떤 재편 과정에서도 바른미래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당내에선 이렇다 자못하면 정계개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흡수 통합'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컨벤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당대회 역시 이번엔 예정대로 흘러가며 별다른 이슈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손 대표가 지지를 잠재 상황을 극복할 어떤 계기를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동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명동 선정

광주 동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최종 발주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주거지 지원형'에 동명동 일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뉴딜사업 선정으로 동구는 동명1주택재개발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확충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 편의시설 설치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에 4년간 총 200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동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화 추진되지 못해 슬럼화가 진행 중인 동명동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지역민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발굴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등 공모사업을 적극 준비한 끝에 선정 됐다

서구, 공간 나눔으로 공유문화 확산

광주 서구가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간 나눔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공공시설(19개소 44개), 민간시설(12개소 43개)의 회의실, 교육실 등 공간이 주민의 동아리 소모임 공간으로 사용되고 공공시설(45개소 1,815면), 민간시설(26개소 1,373면) 주차공간으로 개방되어 있다.

주민들은 개방공간에서 오키리나, 노래연습, 연극연습 등 동아리연습을 하거나 소모임 등의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교육실, 회의실 등은 주민들의 사용요청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방하며, 사용 3일전 사전 예약 후 사용이 가능하다. 주차장은 주말이나 교회 행사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평일 08시부터 1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남구 사직동, 청년 거주 새로운 모습 탈바꿈

지난달 3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 99곳을 발표했다.

남구는 이번 공모에 청년 임대주택과 문화거점지 조성, 주택 정비사업을 골자로 하는 '더 청년 사직, 리뉴얼 선풍골' 사업을 제출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200여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시로 공·폐가 및 영세 노후주택 밀집으로 도심 기능이 쇠퇴하고, 인구 감소 등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사직동 일원은 생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며 청년층 인구가 유입되는 동네로 변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 청년 중심 대학티운형 도시재생 추진

광주 북구가 민선 7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지난달 31일 북구에 따르면 '전남대·광주도시공사'와 함께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이 국토교통부 2018년 도시재생(대학타운형) 뉴딜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남대학교와 중흥동 일원에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대학자산 지역 환원, 테마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북캠퍼스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비 150여원을 포함한 총 400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광산구, 영양교육·요리체험 교실 성료

1일 광주 광산구가 송정1동 원동프로그램실에서 20여명의 드림스타트 아동을 초대해 영양교육과 요리체험이 어우러진 '요리광' '조리광' 영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영양교육은 동아리 행복한 교육급식을 위한 영양교사(회장 장봉진) 회원 4명의 재능기부로 이뤄진 것. 인스턴트 음식과 패자 위주의 영양섭취로 비만 등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과 재미있는 요리 체험 기회를 주는 자리였다.

영양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식품구성 자전거로 바랍직한 식생활 실천'을 주제로 여러 영양소와 식품군에 대해 알려줬다. 아울러 껌밥·카나페·파인애플 등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임행택 기자

광주-대구, 오늘 국회서 달빛내륙철도 포럼

경유지 10개 지자체·국회의원·전문가 등 참여

광주와 대구를 잇는 '영·호남 실크로드'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이 3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달빛내륙철도가 통과하는 10개 지방자치단체(광주, 대구,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함천, 고령)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지역 주민과 학계전문

가, 정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달빛내륙철도의 기능과 역할, 필요성, 내륙의 어려움과 상생 방안, 남북철도와 연계를 통한 남북 협력사업의 수혜지역 확대, 사업 조기추진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6조원 이상을 투입해 양 도시

간 191km 구간을 고속화철도로 건설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했으며,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됐다.

특히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해 7월 달빛내륙철도 건설추진협의회와 올해 3월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지자체장 협의회 등을 꾸리며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모으고 지난 6월부터는 자체연구 용역도 들어갔다.

앞으로는 국비 확보를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광주시 등 10개 지자체

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신규 사업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광주~대구 간 이동거리는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돼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하게 되고 1300만명 규모의 초광역 남북경제권 형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광주시와 대구시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분위기에 맞춰 남북철도와 달빛내륙철도를 연계, 향후 남북 경제협력사업 전체 효과를 끌어올리고 영호남까지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은홍 기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구독신청·광고문의 : 062-224-5800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임대상속중여
- 기업진단
- 기장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기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삼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실험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